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 오해 및 부부갈등: 의사소통의 역할*

황 민 혜

고 재 홍[†]

경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결혼가치관의 차이, 배우자의 결혼가치관 오해와 부부갈등에서 부부의 세 가지 의사소통(건설적, 손상적, 요구철회) 사용정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기간 10년 이내의 부부 176쌍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결혼가치관 차이와 부부갈등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었다. 특히 남편이 사용하는 건설적 의사소통이 부부의 결혼가치관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간 건설적 의사소통은 결혼가치관 차이로 인해 아내가 경험하는 부부갈등을 조절해 주고 있었다. 둘째, 배우자의 결혼가치관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에서도 건설적 의사소통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도 건설적 의사소통은 배우자의 결혼가치관의 오해로 인한 아내의 부부갈등 완화에 도움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손상적 및 요구철회 의사소통의 조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어 : 부부갈등, 결혼가치관, 부부간 차이, 오해, 의사소통

* 본 연구는 2009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고재홍,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631-70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449

E-mail : kopsy@kyungnam.ac.kr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결혼생활이 성공적이기를 바라지만, 부부의 사랑만으로는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Beck, 1998). 2008년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건수 중 결혼기간이 0-5년 미만인 경우가 33.1%, 5-10년 미만은 21.7%, 10-15년 미만은 18.3%, 15-20년 미만은 16.5%, 20년 이상은 26.9%로서, 결혼초기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다(통계청, 2009). 우리나라 부부들은 성생활과 부부간 대화, 경제문제 이외에도 성격이나 자녀지도 방식 등과 같은 서로간의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예: 김갑숙, 최외선, 1992).

부부갈등

Coleman, Kenny, 및 LaFontana(1994)은 부부갈등을 부부간 목표의 상충과 기대의 불일치로 인한 양자간 다툼으로 보았다. 특히 결혼초기는 부부 각자가 지닌 일상생활 방식과 습관, 의사소통 방식, 삶에 대한 가치관 등에서 서로간의 차이와 오해로 인해 필연적으로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된다(Minuchin, Roseman, & Baker, 1978). Brown과 Brown(2002)에 따르면, 결혼생활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단위를 형성함으로써 이전에는 각자 혹은 부모가 정해놓은 문제를 두 사람이 재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이때 서로의 차이점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게 된다. 부부갈등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며, 여기에는 언쟁, 신체적 싸움, 및 가출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전략들이 포함된다(Strauss, 1979).

부부갈등은 가정생활 중 부부 사이에서 겪

는 긴장감이나 사소한 말다툼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 큰 싸움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며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되기도 한다(김민녀, 채규만, 2006). 실제로 이혼한 부부들의 이혼사유 중 절반이상은 성격차이에서 비롯된 불화와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이었다(동아일보, 2009년 3월 31일). 부부갈등은 당사자들의 결혼생활의 불만뿐만 아니라 가족의 별거나 가정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정진아, 신희천, 2006; Grych & Fincham, 1993; Kitman, 2000).

이러한 부부갈등은 결혼기간에 따라 높은 시기와 낮은 시기가 있고(김민녀, 채규만, 2006; Gottman & Levenson, 2000), 대체로 가족의 응집성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크며(최규련, 1994),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김영희, 정선영, 2007). 특히 결혼초기에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혼적응에 실패하여 이혼에 이르기 쉽다(김희진, 2005; 최혜경, 노지영, 박의순, 1994).

부부간 차이와 오해

최근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등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부부 각자의 특징보다는 부부 상호간의 유사성이나 차이와 같이 부부간에 존재하는 상호지각과 같은 이자(dyadic) 변인이 주목받고 있다(김미경, 고재홍, 2008; 서정선, 신희천, 2007; Acitelli, Kenny, & Weiner, 2001; Gonzaga et al., 2007; Lee, Ashton, Pozzebon, & Visser, 2009).

부부와 같은 커플의 상호지각을 다루는 대표적인 모형은 Kenny와 Acitelli(2001)의 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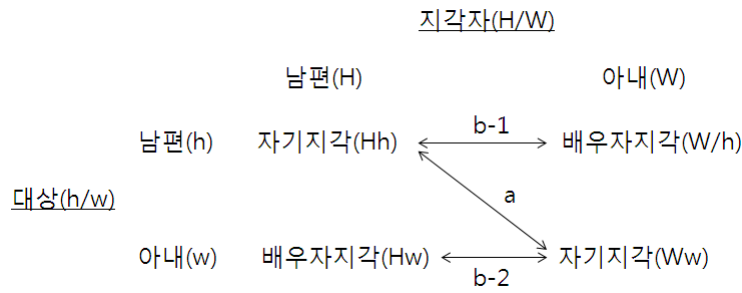


그림 1. 부부의 상호지각을 근거로 한 결혼가치관 차이와 오해

a = 부부간 결혼가치관의 차이, b-1 = 아내의 남편 결혼가치관 오해,
b-2 = 남편의 아내 결혼가치관 오해

(dyad) 관계모형이다. 여러 연구들(예: 허진자, 고재홍, 2008; Acitelli et al., 2001; Kenny & Acitelli, 2001)은 이 모형에 근거하여 커플의 자기지각과 상대방지각간 일치 혹은 차이의 효과를 다루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부부와 같은 커플에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지각에 따라 여러 가지 상호지각의 일치(혹은 차이)가 나올 수 있다.

즉 부부나 연인처럼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커플관계에서 여러 종류의 지각 차이가 나올 수 있고, 그 유형에 따라 부부간 차이를 실제 차이(discrepancy)와 배우자에 대한 오해(misunderstanding)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남편 자신의 결혼가치관(Hh)과 아내 자신의 결혼가치관(Ww)간의 차이를 ‘부부간 결혼가치관의 차이’의 크기로 볼 수 있다(그림 1에서 a). 반면 남편(또는 아내)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결혼가치관과 그 배우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결혼가치관 간의 차이를 배우자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오해의 크기로 볼 수 있다(그림 1에서 b-1, b-2). 여기서 배우자에 대한 오해의 크기란 부부가 자기 배우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도(부정확성의 크기)

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이 알고 있는 아내의 특성과 아내가 말하는 자신의 특성간의 차이(남편의 배우자오해, 그림 1에서 Hw와 Ww간의 차이)와 ‘아내가 알고 있는 남편의 특성과 남편이 말하는 자신의 특성간 차이(아내의 배우자오해, 그림 1에서 Wh와 Hh간의 차이)로 구분된다. 둘 간의 차이가 클수록 부부는 배우자의 결혼가치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간 결혼가치관의 차이, 오해, 및 갈등간의 관계

사회적 지각이 대인간 갈등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예: Corsini, 1956). 예를 들어 유사성 가설(Byrne & Blaylock, 1963)에 따르면, 어떤 한 대상(X)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가 비슷할 때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게 되며, 그 대상(X)에 대한 양자의 태도가 서로 다르면 서로에 대한 불만과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여러 실험연구들에서 피험자들은 자신과 태도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준 사람에게 더 호감을 나타냈다

(Berscheid & Walster, 1978; Byrne & Blaylock, 1963). 이러한 유사성효과는 서로 모르는 타인들(이를 유령타인-phantom others-이라 부름)뿐만 아니라 동성친구, 이성친구, 연애키퍼, 부부들의 경우에도 나타났다(Byrne & Blaylock, 1963; Gonzaga, Campo, & Brasbury, 2007; Morry, 2007). 그러나 양자관계에서 유사성이나 차이에 따른 호감 효과는 유령타인이 사용된 실험 연구에서보다는 실제 커플을 다룬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작았다. 특히 현재에도 진행중인 관계(연애키퍼, 부부)에서는 유사성과 호감간의 관계가 훨씬 약하게 나타난다(Montoya & Horton, 2004 참조).

또한 친밀관계인 경우 양자간 실제 유사성보다는 상대방의 특성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를 지각된 유사성 혹은 가정된 유사성이라 부름)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후자가 그들의 관계만족도와 더 관련성이 높았다(예: 김향련, 고재홍, 2007; Acitelli, Douvan, & Veroff, 1993; Morry, 2007). 예를 들어 김향련과 고재홍(2007)은 성격과 가치관 두 영역에서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부들은 실제로 배우자와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이 유사한 정도보다는 가정된 유사성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가정된 유사성이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간에는 실제 유사성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가정된 유사성은 증가하였다(Byrne & Blaylock, 1963).

양자관계에서 상대방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수록 갈등이 적다는 상대방에 관한 이해의 효과도 실제 커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김미경과 고재홍(2008)의

연구에서 남편은 아내의 결혼가치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을수록, 오히려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으며, 아내가 남편 결혼가치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의 정도는 아내의 심리적 안녕감과 무관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실제 상호작용이 없었던 실험연구의 경우와 달리 실제 진행중인 관계속의 커플인 경우 커플간 차이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닌 커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커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중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다. 즉 커플간 차이와 오해에 따른 갈등을 조절하는 변인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부부간 의사소통의 효과

부부간 의사소통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부부간 일부 의사소통 방식은 결혼의 질과 관계가 있었다. 대체로 서로 의사표시를 많이 하는 부부가 의사표시를 적게 하는 부부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확보된 의사소통 통로가 있으며 개방적이고 서로의 감정에 민감한 부부들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예: Boyd & Roach, 1977; Christensen & Shenk, 1991). 이종선과 권정혜(2002)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건설적(constructive)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와 정적 관련이 있었으며, 부정적(상호회피,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와 부적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정은과 이영호(2000)의 연구에서는 건설적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요구철회(demand-withdraw) 방식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적(destructive) 의사소통의 경우, 남편의 손상적 의사소통만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Christensen과 그의 동료들(Christensen, 1988; Christensen & Shenk, 1991)은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 중에서도 요구철회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결혼만족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철회 의사소통 방식이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패턴이며 결혼의 질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현대의 높은 이혼율, 가정불화, 가정폭력, 외도와 탈선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실용적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부간 의사소통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이두원, 2009).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원만한 부부간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들이었다(예: Kantor & Lehr, 1975; Klemmer, 1970). 그 이후 서구사회의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자 부부간 의사소통의 연구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부부간 의사소통을 결혼생활에서의 부부갈등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예: Weeks & Hof, 1994; Weeks & Treat, 1992)으로 접근하려는 연구가 많았다.

Olson, Fournier, 및 Druckman(1982)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란 학습되는 것으로 수련이 필요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부부 모두의 기술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술의 다양성이 결여되었다면, 다른 한쪽의 기술수준에 관계없이 양자간의 의사소통은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Donohue(1991)는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부부간 불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들을 근거로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을 이들의 이혼 조정과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Christensen과 Sullaway(1984)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부부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형성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들은 부부들이 형성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5가지(건설적, 손상적, 상호회피, 남편의 요구철회, 아내의 요구철회)로 나누었다. 여기서 건설적 의사소통은 관심, 애정, 유머 등으로 상대방을 더 깊게 이해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는 의사소통이다. 상호회피 방식이란 부부가 특정 영역이나 주제에 대한 대화자체를 서로 피하는 것이다. 요구철회 방식은 부부 중 한명이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대화를 끝내려고 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며 침묵을 지키거나 대화 장소를 떠남으로써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방식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와 낮은 부부를 비교한 연구들(예: Yelsma, 1984)에 따르면, 두 범주의 집단은 부부갈등의 크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갈등대처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긍정적 의사소통(예: 경청, 협상, 수용 등)을 하는 부부가 부정적 의사소통(예: 비난, 경멸, 방어)을 하는 부부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부부간 차이나 오해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부부갈등이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부는 어떠한 대인관계보다 친밀한 관계이므로 갈등이 있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관계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중에서 부부간 의사소통은 부부갈등을 완화 혹은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진희와 김경신(1998)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일수록 부부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결혼초기가 부부 각자가 지닌 일상생활 방식과 습관, 의사소통 방식, 삶에 대한 가치관 등에서 서로간의 차이와 오해로 인해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시기(Minuchin, Roseman, & Baker, 1978)이므로 부부갈등은 결혼초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혼초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어떤 부부들이 결혼가치관의 차이와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반면, 어떤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다룬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부간 의사소통이 부부간 차이와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장면에서도 친밀한 사람(예: 연애크플, 부부)일수록 주요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혹은 오해가 있으면) 양자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Morry, 2007 참조). 그러나 실제 진행 중인 커플(부부, 연인, 친구)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양자간의 특성의 차이나 상대방에 대한 오해에 따른 갈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예: Montoya & Horton, 2004). 그 이유는 어떤 커플의 경우, 그런 가치관 차이(오해)를 잘 극복하는 반면, 어떤 커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커플간 차이(오해)와 갈등사이에는 조절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커플간 대화방식일 수 있다. 즉 실제 부부의 경우 부부간 어떤 의사소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나 배우자에 대한 오해가 부부갈등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부부간 차이나 배우자에 대

한 오해가 부부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부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 방식이 부부간 차이 및 오해로 생기는 부부갈등을 조절해 주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결혼초기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가치관 차이 및 배우자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부갈등이 부부간 의사소통 방식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의 의사소통이 부부간 차이와 배우자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을 조절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셋째, 부부의 의사소통은 남편과 아내의 갈등 중 주로 어느 쪽 갈등을 완화해 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결혼초기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종선, 권정혜, 2002; 최혜경 등, 1994; Acitelli et al., 1993)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 1년~10년 사이의 결혼초기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서울, 인천, 창원에 거주하는 임의로 선정된 부부들이었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목표한 표본 수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총 198쌍의 자료를 수거하였으나,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응답이 누락된 경우 등을 제외한 176쌍의 부

부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편의 연령은 평균 만 34.9세(표준편차 4.43, 26세~44세)이었으며, 부인의 연령은 평균 만 32.4세(표준편차 3.38, 26세~42세)이었다. 이들의 결혼지속 기간은 평균 4.9년(표준편차 3.58, 최하 1년~최고 10년)이었다¹⁾.

부부갈등척도

부부들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갈등크기는 Olsen 등(1982)의 부부용 갈등척도를 최규련(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남편용과 아내용 척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결혼 10년 이내의 부부이므로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두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녀지도’ 영역 4문항 중 자녀 진로지도와 관련된 2문항은 제외한 3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부갈등 척도는 본인의 나쁜 습관(예: 나의 지나친 음주와 술버릇으로 부부간 갈등이 있다) 5문항, 본가와외의 관계(예: 아내가 나의 본가식구에 소홀하여 불만이다) 3문항, 처가와외의 관계(예: 처가식구와의 관계가 부담스럽다) 4문항, 경제문제(예: 가정의 수입이 불충분하여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3문항, 자녀지도(예: 자녀의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문제로 부부간 의견차이가 있다) 2문항, 성격 및 가치관(예: 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 8문항, 성생활 및 대화(예: 아내의 애정표현 방식에 대해 불만이다) 10문항과 같이 7개 갈등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응답자들에게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

지 않다(1점)~“거의 항상 그렇다(5점)”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영역의 구분없이 전체 문항의 응답에 대한 평균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부부를 대상으로 허진자와 고재홍(2008)이 보고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영역별로 .72~.89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93, 아내의 경우는 .95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영역별 신뢰도는 .65~.92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남편과 아내의 경우 모두 .95이었다.

결혼가치관

Acitelli 등(2001)의 연구에서는 미국인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 13개 항목이 제시되었다. 이를 참조한 연구들(예: 고재홍, 전명진, 2003; 김향련, 고재홍, 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들은 10개의 항목들(경제적 여유, 부부간 대화, 애정 표현, 성적 만족, 종교가 같은지의 여부, 집안일을 함께 하기, 자녀양육, 취미활동 함께 하기, 서로에 대한 믿음, 배우자에 대한 배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주요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부부들에게 위의 10가지 항목 각각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자기지각). 즉 부부들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기에 배우자는 그것들 각각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배우자지각).

1) 연령과 결혼기간을 제외한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예: 연소득)은 묻지 않았다.

부부간 의사소통 척도

부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제작한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를 이정은과 이영호(2000)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래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건설적, 손상적, 남편의 요구철회, 아내의 요구철회, 상호회피)을 측정하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예: 박영화, 고재홍, 2005)을 참조하여 부부간 대표적인 세 가지 의사소통(건설적 의사소통, 손상적 의사소통, 요구철회)에 해당하는 총 13문항만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의사소통의 세 단계(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다. 건설적 의사소통은 ‘두 사람 모두 그 문제에 대해 대화하려 노력한다’, ‘두 사람이 서로 가능한 해결책과 타협안을 제시한다’, ‘대화한 이후에,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특별히 잘 해 주려고 한다’와 같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상적 의사소통은 ‘두 사람 모두 서로 상대를 탓하고, 비난하고, 죄를 덮어씌운다’, ‘남편(부인)을 욕하고, 헐박하고, 인신공격을 한다’, ‘남편(부인)을 밀치고, 때리고, 찬다’와 같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철회는 ‘두 사람 모두 그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를 피한다’, ‘대화한 이후에 둘 중 아무도 상대에게 승복하지 않는다’와 같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부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매우 그렇다(8점)”까지의 9점 Likert 척도 상에서 각자 응답하였다.

이정은과 이영호(2000)의 연구에서 보고된 세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건설적 의사소통 .79, 손상적 의사소통 .85, 요구철회 .71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는 남편용의 경우 .68-.81, 아내용의 경우 .64-.86이었다.

절차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서울, 인천, 창원에 거주하는 부부를 가정, 직장, 교회에서 만나 준비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바로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남편용과 아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부부갈등, 자신이 보는 자신의 결혼가치관, 배우자의 결혼가치관, 의사소통 방식 순으로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만약 부부 중 한쪽만 만난 경우, 나머지 배우자의 자료는 반응용 우표를 붙인 봉투를 통해 연구자 쪽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각 부부 쌍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설문지의 표지와 봉투에 연구자들이 응답 부부 쌍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코드번호를 부여해 두었다.

자료분석

부부간 차이나 오해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Cronbach와 Gleser(1953)에 따르면 양자간의 유사성(혹은 차이) 크기는 (1) 두 측정치 차이의 절대 값, (2) 변산성, 그리고 (3) 프로파일 일치도 산출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약 측정변인이 키나 몸무게와 같이 단일 구성개념인 경우, 두 사람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측정치의 차이(실제로는 차이의 절대값)를 알아보면 된다. 그러나 측정변인(측정치)이 여러 하위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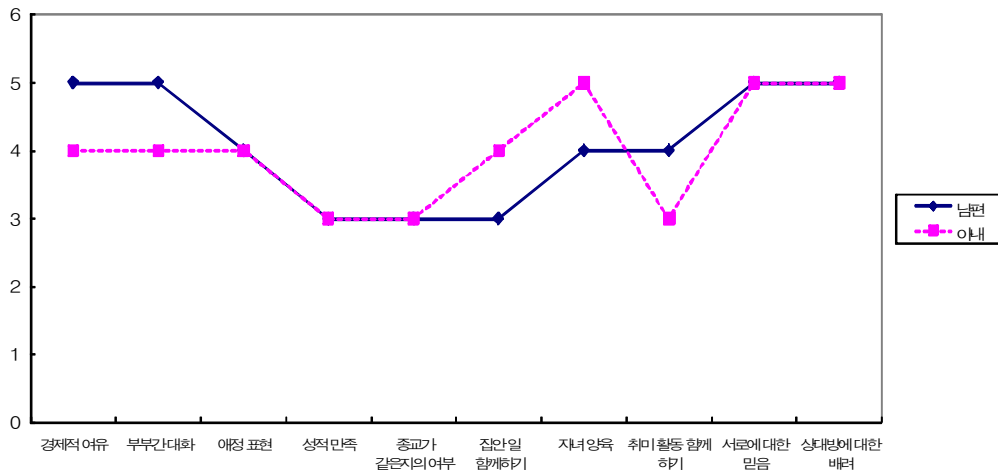


그림 2. 부부간 결혼가치관의 프로파일 예(출처: 김미경과 고재홍, 2008)

성들로 구성된 경우(예: 빅-5 성격차원)는 두 사람간의 하위 특성 값들의 변산성 차이값을 사용하거나 혹은 두 사람의 하위 특성 값들로 이뤄진 프로파일 형태의 일치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enny & Kashy, 2009). 이 중 프로파일 일치도는 두 사람의 프로파일의 모양이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상이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두 프로파일의 생김새(shape)가 상이할수록 양자간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특히 측정 변수가 3~10개인 경우는 프로파일 일치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때 양자간의 일치도 크기는 두 프로파일간의 상관계수로 산출된다(Kenny & Kashy, 2009). 이 측정치의 장점은 유사성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둘 이상의 집단(예: 연애크플 대 부부)간 유사성이나 차이 크기를 비교하는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다. 앞의 두 지표(차이값과 변산성 차이)는 그 크기는 알 수 있으나 그 값의 통계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부들의 결혼가치관은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 일치도를 근거로 부부간 차이 및 오해의 크기를 산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결혼가치관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 부부의 결혼가치관 프로파일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적률상관계수(r)로 구하였다. 그런 다음 부부간 프로파일 일치도를 역산($1-r$)하였다. 남편(혹은 아내)의 배우자에 대한 오해 크기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자신의 자기지각간의 프로파일 일치도를 구한 다음, 이를 역산하였다. 그런 다음, 이후의 분석에서는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크기와 배우자에 대한 오해크기를 모두 Fisher의 z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부부간 결혼가치관의 차이와 배우자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에서 부부가 사용하는 의사소통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부부간 차이나 오해와 조절변인으로 설정한 3가지 유형별 의사소통 사용크기(건설적, 손상적, 요구철회)를 1단계에서 투

입하고, 독립변인(차이 혹은 오해)과 3가지 각각의 의사소통 크기의 곱을 2단계에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하였다. 이때 독립변인과 3가지 조절변인은 원 점수에서 각 평균을 뺀(centering) 점수를 사용하였다. 만약 특정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경우(즉 특정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의사소통이 결혼가치관 차이나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종속변인도 부부갈등에서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갈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특정 의사소통이 부부의 결혼가치관 차이나 배우자 오해로 인한 누구의 갈등에서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 과

기술통계치

먼저 부부들의 결혼기간과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r(143)=.07$, ns . 또한 결혼기간은 배우자에 대한 오해크기와 무관하였으며(각각 남편의 경우 $r=.03$, 아내의 경우 $r=.05$), 결혼기간은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r=.06$)과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갈등($r=.14$)과도 모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그 이외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변인들의 평균과 변인간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한편 부부들의 결혼가치관 일치도 평균(\bar{r})은 .63으로 나타났다, $p<.01$ (양방검증)³⁾. 그러

- 2) 부부갈등은 남편갈등과 아내갈등의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 3) Kenny와 Winquist(2001)에 따르면, 상관계수 평균

므로 이를 근거로 산출한 부부들의 결혼가치관 차이의 평균은 .37로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결혼가치관 오해의 크기는 남편의 경우 .33, 아내의 경우 .36이었으며, 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56)=0.56$, ns . 한편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M=1.99$, $SD=0.55$)에 비해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갈등($M=2.13$, $SD=0.61$)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175)=3.33$, $p<.01$.

부부간 세 가지 의사소통 방식은 모두 상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적 의사소통($r=.47$), 손상적 의사소통($r=.48$), 요구철회($r=.42$), 모든 $p<.01$. 이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손상적 소통을 하는 경우, 부인도 남편에게 비난과 공격으로 소통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부각자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크기도 상호적이었다, $r(174)=.57$, $p<.01$.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와 부부갈등: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에서 부부간 3가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의 요약이 표 2이다.

표 2에서 보듯, 1단계에서 투입된 변인들의 부부갈등에 대한 설명량(R^2)은 약 57%이었다. 먼저 부부의 결혼관차이가 클수록, 부부갈등은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

치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Z = \frac{\bar{r}}{\sqrt{(K-3) \cdot N}}$ 의 공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bar{r} 는 각 쌍의 상관계수를 변환한 Fisher's Z값의 평균치이고 K는 측정치(항목)의 수(여기서는 10), N은 부부 쌍의 수이다.

표 1. 결혼가치관의 차이와 오해, 의사소통 사용정도의 평균 및 측정변인간의 상관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결혼관 차이	-										
2. 아내의 오해	.42**	-									
3. 남편의 오해	.35**	.22**	-								
의사소통											
4. 남편 건설	-.06	.01	-.01	-							
5. 아내 건설	-.11	-.08	-.05	.47**	-						
6. 남편 손상적	.11	.04	0	-.30**	-.23**	-					
7. 아내 손상적	.12	.15	.14	-.32**	-.31**	.48**	-				
8. 남편 요구철회	.20*	.11	.10	-.51**	-.36**	.57**	.48**	-			
9. 아내 요구철회	.15	.20*	.07	-.40**	-.63**	.26**	.52**	.42**	-		
10. 남편 갈등	.06	.15	-.01	-.42**	-.53**	.60**	.41**	.55**	.30**	-	
11. 아내 갈등	.14	-.05	.01	-.50**	-.30**	.42**	.54**	.48**	.59**	.57**	-
평균	.37	.36	.33	5.41	5.16	1.38	1.69	2.14	2.09	1.99	2.13
표준편차	.34	.32	.32	1.33	1.47	1.40	1.40	1.64	1.67	0.55	0.61

주. 차이와 오해의 평균은 $(1-\bar{r})$ 임. * $p<.05$, ** $p<.01$.

표 2. 결혼가치관 차이와 부부갈등에서 세 가지 부부간 의사소통의 효과

단계	투입변인	b	표준오차	β	t	ΔR^2
1	결혼가치관 차이	.15	.10	.12	1.50	.57
	건설적 의사소통	-.09	.03	-.22	-2.79**	
	손상적 의사소통	.16	.03	.35	5.08**	
	요구철회	.12	.03	.33	3.73**	
2	차이×건설적 의사소통	-.12	.03	-.31	-3.56**	.02
	차이×손상적 의사소통	-.05	.08	-.01	-0.62	
	차이×요구철회	-.01	.06	-.10	-0.06	

주. 종속변인: 부부갈등, ** $p<.01$.

었다, $\beta=.12$, $p<.10$. 한편 세 종류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모두 부부갈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부부갈등은 적었으며, 손상적 의사소통과 요구철회가 많을수록 부부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beta=-.22$, $\beta=.35$, $\beta=.33$,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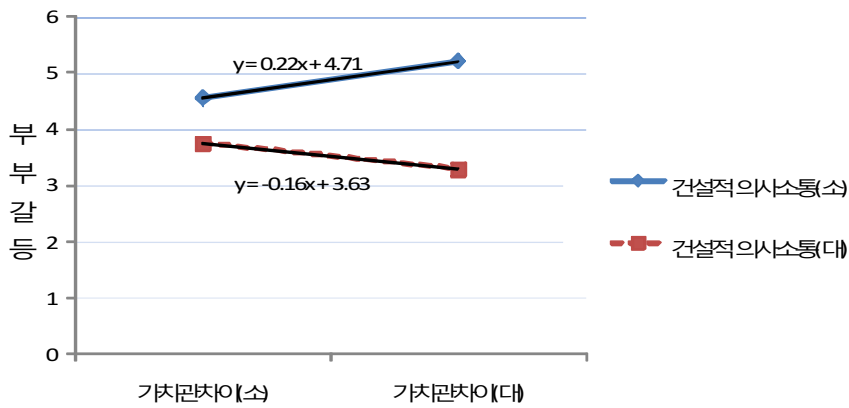


그림 3.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와 건설적 의사소통에 따른 부부갈등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2단계로 투입된 3가지 상호작용의 부부갈등에 대한 증분 설명량(ΔR^2)은 약 2%이었다, $F(3, 138)=3.23, p<.01$. 이 중 결혼가치관 차이와 건설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⁴, $t=-3.56, p<.01$. 즉 건설적 의사소통이 결혼가치관 차이와 부부갈등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ΔR^2 =약 2%). 그러나 손상적 의사소통과 요구철회는 결혼가치관 차이와 부부갈등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의 확인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경우, 전통적인 해석방식은 비표준화 회귀계수로 구성된 회귀방정식에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특정 값들(예: 척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선정하여 회귀식

에 대입함으로써 종속변인의 추정값을 산출하는 것이다(Aiken & West, 1991). 그러나 Cohen, Cohen, West, 및 Aiken(2003)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각각 $M(\text{평균})-1\text{표준편차}(SD)$, $M(\text{평균})+1\text{표준편차}(SD)$ 값으로 하여 회귀식에 대입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⁵. 본 연구에서는 Cohen 등(2003)의 제안에 따라 부부간 건설적 의사소통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 각각에서 결혼가치관 차이로서 부부갈등을 예측하는 회귀식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 보듯, 부부사이에 건설적 의사소통이 적은 경우, 부부의 결혼가치관 차이가 클수록 부부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b=0.22, t=2.15, p<.05$. 그러나 건설적 의사소통이 많은 경우, 결혼가치관 차이와 부부갈등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b=-0.16, t=-1.26,$

4) 만약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 항이 유의하고, 이때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음수(-) 값이면 조절변인 값(예: 건설적 의사소통)이 커질수록 독립변인(결혼가치관 차이)이 종속변인(부부갈등)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한다는 의미인 반면,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가 양수(+) 값이면 조절변인 값이 클수록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는 증가한다는 의미이다(Kenny, 2010 참조).

5) Cohen 등(2003)에 따르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각각 3수준($M-SD, M, M+SD$)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3수준 중 중간(평균)인 경우, 회귀식의 기울기는 항상 두 회귀식의 중간크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간을 제외한 2수준($M-SD$ 와 $M+SD$)에서의 회귀식만을 제시하였다.

ms.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건설적 의사소통이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와 부부갈등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와 부부갈등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t=-3.32, p<.01$),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와 부부갈등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지 못하였다($t=-1.82, ns$). 즉 주로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이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의 건설적 의사소통이 결혼가치관 차이로 인한 부부 중 어느 쪽의 갈등을 완화해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부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결혼가치관 차이와 남편이 경험하는 부부갈등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t=-1.31, ns$), 부부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결혼가치관 차이와 아내의 갈등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24, p<.01$). 결론적으로 부부의 결혼가치관 차이로 인해 아내가 경험하는 부부갈등은 남편이 건설적 대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완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결혼가치관 오해와 부부갈등: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배우자의 결혼가치관 오해와 부부갈등 사이에서 부부의 3가지 의사소통 각각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표 3이다.

표 3에서 보듯, 1단계에서 투입된 변인들의 부부갈등에 대한 설명량(R^2)은 약 54%이었다. 한편 2단계에서 투입된 배우자 오해와 3가지 유형의 의사소통간 상호작용이 부부갈등에 대한 증분 설명량(ΔR^2)은 약 4%이었다, $F(3, 138)=4.30, p<.01$. 3가지 의사소통 중 건설적 의사소통은 배우자의 결혼가치관 오해와 부부갈등 사이에서 조절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ΔR^2 =약 3%), 손상적 및 요구철회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인 건설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Cohen 등(2003)의 방법으로 살펴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에서 보듯, 부부간 건설적 의사소통이 적은 경우, 배우자 결혼가치관 오해가 클

표 3. 배우자 가치관오해와 부부갈등에서 세 가지 부부간 의사소통의 효과

단계	투입변인	<i>b</i>	표준오차	β	<i>t</i>	ΔR^2
1	배우자 오해	.11	.14	.08	0.83	.54
	건설적 의사소통	-.09	.03	-.20	-2.49*	
	손상적 의사소통	.16	.03	.37	4.95**	
	요구철회	.12	.03	.32	3.41**	
2	오해×건설적 의사소통	-.16	.08	-.28	-2.00*	.04
	오해×손상적 의사소통	-.01	.10	-.01	-0.81	
	오해×요구철회	-.10	.06	-.24	-1.61	

주. 종속변인: 부부갈등,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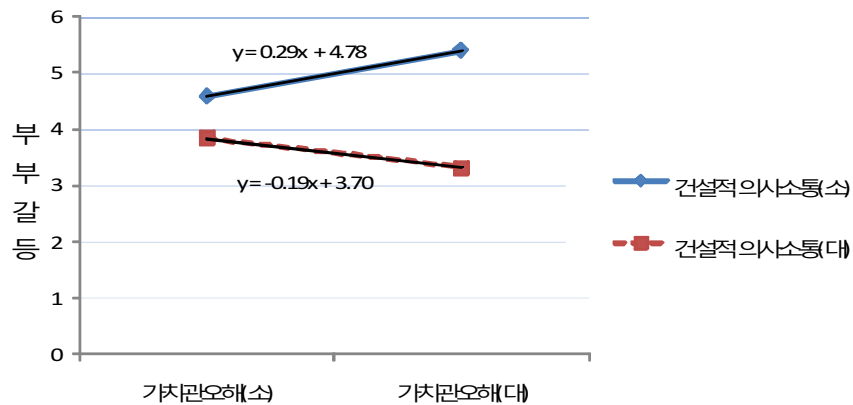


그림 4. 부부의 결혼가치관 오해와 건설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

수록 부부갈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b=0.29$, $t=2.91$, $p<.05$. 그러나 건설적 의사소통이 많은 부부의 경우, 결혼가치관 오해크기와 부부갈등은 무관하였다, $b=-0.19$, $t=-1.19$, ns .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의 건설적 의사소통이 결혼가치관의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결혼가치관 오해와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t=-2.74$, $p<.01$). 즉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이 결혼가치관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가치관 오해와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t=-0.79$, ns). 즉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결혼가치관 오해와 부부갈등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건설적 의사소통은 결혼가치관 오해로 인한 남편의 갈등과 아내의 갈등 중 어느 쪽의 갈등을 완화시키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내의 갈등을 종속변인으로 한 경우, 결혼가치관 오해와 부부의 건설적 의사소통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나($t=-2.96$, $p<.01$), 남편

의 갈등을 종속변인으로 한 경우에는 결혼가치관 오해와 부부의 건설적 의사소통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t=0.86$, ns). 즉 부부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결혼가치관의 오해로 인한 아내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성격, 가치관, 욕구, 정서적 경험의 유사성이 결혼만족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국내외의 여러 연구결과들(예: 허진자, 고재홍, 2008; Acitelli et al., 2001; Anderson, Keltner, & John, 2003; Gonzaga et al., 2007)을 근거로 하였다. 즉 부부의 결혼가치관 차이와 배우자에 대한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에서 부부간 의사소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부간 3가지 의사소통(건설적, 손상적, 요구철회) 각각이 가치관 차이와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을 완화 혹은 증폭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

히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와 오해의 크기를 부부간 지각의 차이값이 아닌 프로파일 일치도로 산출한 점은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이다.

만약 부부간 특정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우는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의사소통이 결혼가치관의 차이와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에서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부부간 의사소통이 결혼가치관의 차이와 오해로 인한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의 갈등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상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비난과 같은 손상적 의사소통을 하면 다른 한쪽도 같은 방식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부간 행동도 상호성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Kumagai & Strauss, 1983). 정적 상호성에 비해 부적 상호성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Kelley & Stahelski, 1970)에 부부간 부정적 의사소통의 상호성은 부부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부부 의사소통 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부갈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적 의사소통은 부부갈등과 부적으로 관련된 반면, 손상적 의사소통이나 요구철회는 부부갈등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실제로 부부는 대화방식, 애정 표현, 성적 만족, 가사분담, 자녀양육과 같이 여러 부분에서 대립이 생기기 때문에 부부의 의사소통은 부부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부부의 의사소통이 설명하는 부부갈등의 설명량은 50%이상이었다.

둘째, 예상과 달리 부부간 결혼가치관의 차

이와 오해가 부부갈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다. 이는 부부간 성격이나 결혼관의 유사성이 결혼만족도와 관련된다는 이전의 연구들(예: 김향련, 고재홍, 2007; Acitelli et al., 2001)과 다른 결과이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각 연구의 종속변인(부부갈등, 결혼만족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부간 결혼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결혼가치관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에서 건설적 의사소통만이 조절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가 건설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하는 경우, 결혼가치관 차이는 부부갈등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이 경우, 주로 남편의 의사소통이 둘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로 아내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편이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는 부부의 결혼관 차이와 부부갈등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셋째, 부부가 건설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배우자의 결혼가치관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에서도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주로 남편이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부(특히 아내)가 갈등을 겪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결혼가치관 차이와 오해로 비롯된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의 조절효과 중 건설적 의사소통을 제외한 두 부정적 방식의 의사소통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치관의 차이와 오해로 비롯된 갈등은 부정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Deutsch & Krauss, 1960)을 고려할 때 이는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특히 부부갈등이나 결혼만족도에서 아내의

행동이나 특성이 남편의 갈등이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남편의 행동이나 특성이 아내의 갈등이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결과는 이전 연구들(예: 박영화, 고재홍, 2005; Beach, Katz, Kim, & Brody, 2003)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공감연구들(예: Gottman & Levenson, 2000)에서도 대체로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방의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행복한 부부들의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아내의 관점과 감정을 잘 수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부부 연구에서 부부의 관계적 특징들이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박영화와 고재홍(2005)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의사소통 방식에 덜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남편의 손상적 의사소통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부의 갈등해소 및 결혼만족 증진을 위해 특별히 남편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대체로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에 선행된다(Murphy, Meyer, & O'Leary, 1993). 이런 결과로 유추해 볼 때, 부정적 의사소통의 상호성은 단순한 부부갈등을 넘어서 차후에 신체적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종선, 권정혜, 2002)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치료적 개입이 중요하다. 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중년부부의 갈등은 신혼기 때의 갈등이 미해결상태로 지속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초기의 부부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김희진,

2005; 최혜경 등, 1994).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초기 부부갈등과 관련된 변인으로 결혼가치관을 살펴보았다. 이는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치관이 결혼가치관이라는 Acitelli 등(2001)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김향련과 고재홍(2007)의 연구에서도 결혼가치관에 대한 부부간 상호지각과 결혼만족도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정서, 자기공개, 성격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의 양자간 차이와 오해가 양자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Morry, 2009 참조).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실제 부부라서 자료수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부부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은 안녕감이나 결혼만족도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가치관과 같은 내면적 요인 이외에도 또 다른 요인들(예: 경제문제, 자녀문제)이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의 나이와 결혼기간을 제외한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수입의 크기, 학력 등의 많은 요인들이 직접 부부갈등에, 혹은 부부간 차이나 오해와 부부갈등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없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결혼 초기 부부의 갈등과 연관된 다양한 변인들(예: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문화적 변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내린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준거를 판단 대상의 자기지각으로 삼았다. 가령, 남편이 아내의 결혼가치관에 대

한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혹은 부정확한지의 정도는 아내가 자신의 결혼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판단자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아볼 때, 사용될 수 있는 준거는 다양하다(Kruglanski, 1989 참조). 즉 전문가의 판단, 조작적으로 정의된 기준, 여러 사람의 판단치(Funder, 1995), 및 객관적으로 관찰된 행동(Kenny et al., 2007)이 준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오해의 준거로 이들 다양한 준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모든 측정치가 부부로부터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이었다.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조절변인(의사소통)이 독립변인(차이와 오해)의 측정보다 이전에 측정되어야 한다(Kenny, 2010). 그러나 조절변인이 불변적 특성(예: 성)이거나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예: 지능)이라면, 그것의 측정시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Christensen과 Sullaway(1984)에 따르면 부부간 의사소통 방식은 결혼초기에 형성되어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변인의 효과를 다루는 추후의 연구에서는 종단적 측정을 통해 조절변인의 측정시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커플을 연구하는 여러 방법론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부부를 다룬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커플의 상호작용적 변인들보다는 어느 한쪽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부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통계분석을 따로 함으로써 제 1종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로 결과분석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부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

료의 분석에서 부부간 프로파일 형태를 이용한 상호지각의 차이 값을 근거로 부부간 차이와 오해를 정의하였다. 연구자가 관심있는 특성이 성격이나 가치관과 같은 다차원인 경우, 부부간 상호지각의 차이와 유사성을 알아보는 여러 방법 중 프로파일 일치도는 여러 장점이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여러 차원에서 부부간 지각의 차이를 하나의 지표로 알아보는 프로파일 분석은 단짝 친구, 연인, 혹은 부부와 같은 양자관계 연구에서 유용한 분석의 틀이 될 것이다.

또한 실용적 의미에서 건설적 의사소통이 부부간 지각차이에서 생기는 부부갈등을 완화시킨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부상담에서 부부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의사소통훈련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남편의 의사소통이 부부간 차이나 오해로 인한 부부갈등을 조절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가정내 화목을 위해 남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주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결혼초기의 부부들 이외에도 연애크플 및 중년기 이후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의 차이와 오해로 인한 갈등,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에서 어떤 요인들(예: 문제 해결전략)이 갈등을 증폭 혹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홍, 전명진 (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 프로파일 유사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16.
- 김갑숙, 최외선 (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

-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33-143.
- 김미경, 고재홍 (2008). 프로파일 일치도로 본 부부간 유사성과 배우자 이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215-235.
- 김민년, 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 김영희, 정선영 (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갈등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65-82.
- 김진희, 김경신 (1998).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6(8), 63-76.
- 김향련, 고재홍 (2007).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89-105.
-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 동아일보 (2009. 3. 31). 사설: 부부 이혼 절반은 오해. 2면.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0.
- 이두원 (2009). 부부간 의사소통 행태의 세대별 특성과 변천과정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7(1), 129-151.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중선, 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13-330.
- 정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 592.
- 최규련 (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혜경, 노지영, 박의순 (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71-180.
- 통계청 (2009). 2008년 인구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 허진자, 고재홍 (2008). 부부의 심리적 욕구차이, 배우자 욕구오해 및 부부갈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27-41.
- Acitelli, L. K., Douvan, E., & Veroff, J. (1993). Perception of conflict in the first of marriage: How important ar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0*, 5-19.
- Acitelli, L. K., Kenny, D. A., & Weiner, D. (2001). The importance of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of partner's marital ideals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8*, 167-185.
- Anderson, C., Keltner, D., & John, O. P. (2003).

- Emotional convergence between people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054-1068.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each, S., Katz, J., Kim, S., & Brody, G. H. (2003). Pro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s: A dyadic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55-371.
- Beck, A. T. (1998). *Love is never enough*. NY: Harper Perennial.
- Berscheid, E., & Walster, E. (1978). *Interpersonal attraction*(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 Boyd, L., & Roach, A. J. (197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differentiating more satisfying from less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540-551.
- Brown, J. H., & Brown, C. S. (2002). *Marital therapy: Concepts and skills for effective practice*. NY: Thompson Learning.
- Byrne, D., & Blaylock, B. (1963). Similarity and assumed similarity of attitudes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636-640.
- Christensen, A. (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s in couples. In P. Noller & M. A.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pp. 31-52). Philadelphia, PA: Multilingual Matters.
- Christensen, A., & Shenk, J. L. (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al, and divorcing couple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458-463.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Erlbaum.
- Coleman, A., Kenny, D. A., & LaFontana, K. M. (1994). Matchmaker, matchmaker, can you make me a match? Predicting liking between two unacquainted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83-91.
- Corsini, R. J. (1956). Understanding and similarity in marria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 327-332.
- Cronbach, L. J., & Gleser, C. C. (1953). Assessing similarity between profile. *Psychological Bulletin*, 50, 456-473.
- Deutsch, M., & Krauss, R. M. (1960). The effect of threat upon interpersonal bargain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181-189.
- Donohue, W. A. (1991). *Communication, marital dispute, and divorce mediation*. Hillsdale, NJ: Erlbaum.
- Funder, D. C. (1995). On the accuracy of personality judgement: A realistic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102, 652-670.
- Gonzaga, G. C., Campos, B., & Bradbury, T. (2007). Similarity, converg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and married

-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34-48.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37-745.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interparen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Kantor, D., & Lehr, W. (1975). *Inside the family*. NY: Harper & Row.
- Kelley, H. H., & Stehelski, A. J. (1970). Social interaction basis of cooperators and competitors beliefs about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66-91.
- Kenny, D. A. (2010). *Moderation*. <http://davidakenny.net/cm/moderation.htm>에서 2010. 10. 28 인출.
- Kenny, D. A., & Acitelli, L. K. (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439-448.
- Kenny, D. A., & Kashy, D. A. (2009). Dyadic data analysis using multilevel modeling. In J. Hox & J. K. Roberts (Eds.), *The handbook of multilevel analysis*. London: Taylor Francis.
- Kenny, D. A., West, T. V., Cillessen, A. H. N., Coie, J. D., Dodge, K. A., Hubbard, J. A., & Schwartz, D. (2007). Accuracy in judgments of aggress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1225-1236.
- Kenny, D. A., & Winquist, L. (2001). The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Design, components, and unit of analysis. In J. Hall & F. Bernieri (Eds.), *Interpersonal sensitivity: Theory, measurement, and applications* (pp. 265-302). Englewood Cliffs NJ: Erlbaum.
- Kitma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13.
- Klemer, R. H. (1970).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s*. NY: Harper & Row.
- Kruglanski, A. W. (1989). The psychology of being "right": The problem of accuracy in social perception and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398-409.
- Lee, K., Ashton, M. C., Pozzobon, J. A., & Visser, B. A. (2009). Similarity and assumed similarity in personality reports of well-acquainted per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 460-472.
- Kumagai, F., & Strauss, M. A. (1983). Conflict resolution tactics in Japan, India, and US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4, 377-387.
- Minuchin, S., Roseman, B. L., & Baker, L. (1978). *Psychosomatic families: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ntoya, R. M., & Horton, R. S. (2004). On the importance of cognitive evaluation as a determinant of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696-712.
- Morry, M. M. (2007). The attraction-similarity hypothesis among cross-sex friends: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ceived similarity, and self-serving percep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 24, 117-138.
- Murphy, C. M., Meyer, S. L., & O'Leary, K. D. (1993). Family of origin violence and MCMI-

- II: Psychopathology among partner assaultive men. *Violence Victims*, 8, 165-176.
- Olsen, D. H., Fournier, D., & Druckman, J. (1982). *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Straus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Weeks, G., & Hof, L. (1994). *The marital relationship therapy casebook: Theory and application of the intersystem model*. NY: Brunner/Mazel.
- Weeks, G., & Treat, S. (1992). *Couples in treatment*. NY: Brunner/Mazel.
- Yelsma, P. (1984). Functional conflict management in effective marital adjustment. *Communication Quarterly*, 32, 56-61.
- 1 차원고접수 : 2010. 7. 23.
심사통과접수 : 2010. 11. 30.
최종원고접수 : 2010. 12. 22.

Discrepancy,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 in Married Couples: The Role of Communication

Min-hye Hwang

Jaehong Ko

Ky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three types of communication (constructive, destructive, demand-withdraw) married couples have used played a role in the conflict caused by the discrepancy in couple's marital ideals and misunderstanding of spouse's ideals. One hundred and seventy six married couples whose marriage have lasted less than 10 years evaluated on their marital conflicts, marital ideals, and using three types of communication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structive communication alleviated the marital conflict caused by the discrepancy in the marital ideals. Specifically, husband 's constructive communica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epancy and marital conflict. The mutual constructive communications also turned out to play a critical role in the wife's conflict. Second, it seemed that marital conflict caused by misunderstanding of spouse's marital ideals become alleviated when there was the more constructive communication between married couples. Additionally, husband's constructive communic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wife's marital conflict.

Key words : marital conflict, marital ideals, discrepancy, misunderstanding, communication